

72
니부터
2012 겨울호



퍼넛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퍼넛이 백미순 퍼넛날 2012년 12월 31일 만든지 나눔터 편집팀 디자인 디자인이즈
주소 (121-897)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번지 2층 전화 02-338-2890~2 팩스 02-338-7122 이메일 ksvrc@sisters.or.kr
나눔터는 디자인이즈의 재능기부로 디자인되었습니다

<u>4</u>	<u>기획특집 :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삶</u>
5	투투에게 당당한 레즈비언 엄마가 되고 싶어요
9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
13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고 고양이는 혐오하는가-호리와 함께 살아가기
<u>16</u>	<u>삶의 돋보기</u>
16	나의 건강실천단 이야기_다이어트 갈때기와 똥 빛는 재미
20	사주명리학 왕초보 입문기
<u>24</u>	<u>만나고 싶었습니다</u>
24	다큐멘터리 영화 <잔인한 나의, 흠> 감독 아오리
<u>28</u>	<u>문득 떠오른 질문</u>
28	사귀는 사이에도 성폭력이 있을 수 있나요?
<u>31</u>	<u>열린터 이야기</u>
31	쉼터 활동가로 살아가기
34	열린터 다이어리
<u>36</u>	<u>본편보다 재밌는 후일담</u>
36	9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다시보기> 후기: 여름 지나고 겨울, 다시보기
<u>40</u>	<u>상담소의 밥상</u>
40	열린터 요리 자원 활동가의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u>42</u>	<u>원대 상담소</u>
<u>44</u>	<u>나눔과 참여</u>
44	온라인 후원으로 변화를 모색하기
<u>46</u>	<u>훈훈한 기부</u>
<u>47</u>	<u>아낌없이 주는 나무</u>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다양한 생명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수많은 생명 중 하나일 뿐이지요.
다른 생명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공존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나눔터 기획특집에서는
다른 생명과 함께 하는 삶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세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박김수진님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며 경험한 삶의 변화를 돌아보고
나영님은 반려 공동체로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를
란님은 길고양이들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무쪼록 세 여성들이 나누어주는 경험과 지혜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삶을 궁금해 하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소중한 팁이 되기를 바랍니다.

투투에게 당당한 레즈비언 엄마가 되고 싶어요

박김수진 | 동물권연구활동모임 공존

안녕하세요? 저는 파트너인 바른얼굴님, 딸인 투투, 아들인 비비와 함께 살고 있는 레즈비언입니다. 2인·2견으로 구성된 우리 가족은 햇수로 5년째 서울 마포구에서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재미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육아가 그러하듯 투투와 비비의 육아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기도 하고, 가끔은 경제적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비비는 4년 전에 바른얼굴님의 부모님 댁에서 우리 집으로 온 강아지이고요, 투투는 11년 전부터 지금까지 저와 동거하고 있는 강아지입니다. 저는 원래 동물에 별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강아지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도 없던 사람이었고요. 저는 강아지가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우울함이나 기쁨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동물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매일 치아 관리를 해주어야 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한 생명체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강아지들도 생로병사의 질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이런 제가 ‘강아지를 키워야지’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무턱대고 투투를 데리고 온 것이지요. 투투와 함께 살면서 ‘개’라는 동물이 얼마나 영리하고, 감정이 풍부하며, 의사전달 능력이 뛰어난지 알게 되었습니다. 투투는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3시간 정도는 의연하게 기다리지만, 5시간이 넘어가면 혼자 작은 소리로 울어요. 그리고 투투는 한결같아요. 잠시 이별한 후 다시 만날 때면 항상 같은 마음으로 저를 반겨주고, 저를 사랑해줍니다. 무엇보다 투투는 엄마가 동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 하는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믿어준답니다. 투투는 이제 11살이 되었습니다. 이가 흔들리며 하나씩 빠지기 시작했고, 머리와 등에는 검버섯이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유

선염으로 고생 중이지요. 투투와 함께 해 온 11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도 많이 늙었습니다. 주름은 깊어졌고, 흰머리의 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투투와 저는 함께 나이 들어가는 중입니다.

투투와 함께 해 오면서 서서히 다른 동물들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투투에게 다양한 감정이 있다면 ‘고양이’인 나비에게도 다양한 감정이 있을 것 같았고요, ‘개’인 투투가 고통을 느낀다면 ‘돼지’인 베이브도 고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이 문제를 깊이 탐구하지는 않았습니니다. 투투와 동거하는 오랜 기간 동안 저는 친구들과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돼지 갈비 집을 찾아 다녔고, ‘맛집 탐방’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하다는 스테이크 집을 찾아 돌아 다녔지요. 가끔씩 고기 집으로 향하는 마음이 무겁기도 하였고, 뭔지 모를 불편한 기분에 망설인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불편한 마음을 쉽게 감출 수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테이블 앞에 앉아 고기 덩어리들을 보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그 덩어리들을 ‘덩어리’로만 볼 수 있는 신비로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불편한 마음은 느꼈지만, 고기 섭취에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지요.

2010년 말부터 연일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구제역으로 인해 생매장 되는 농장동물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었고, 구제역으로 생매장 되는 동물들에 관한 뉴스는 2011년 초까지도 이어졌지요. 그 시기에 380만여 마리의 농장동물들이 생매장 되었습니다. 2010년 말에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 잠입 촬영했던 돼지 생매장 현장 동영상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때까지만 해도 ‘고기를 먹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 했어요. 그저 생매장 당하는 돼지와 소들이 ‘불쌍하다’고만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런 기사를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하여 살처분되기 직전의 어미 소와 아기 소의 이별의 순간을 ‘아름답고도 애잔하게’ 묘사한 기사였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갑자기 너무 화가 나기 시작했고, 기사를 읽고 일기 시작한 제 안의 ‘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화’의 정체를 탐구하기 시작했고, 제가 내고 있는 ‘화’의 대상은 다름 아닌 저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기자가 농장동물의 살처분이라는 현실 앞에서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감정을 가진, 살아 있는 동물이었어요. 하

지만 현실의 동물은 살아있는 채로 땅에 묻혀가고 있었지요. 같은 동물을 두고 살처분해도 무방한 존재로 만들고는 또 한 편으로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감정을 가진 동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그 기자에게만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동거해 온 투투를 보면서 '동물의 신비'에 관해 감탄하던 저는 또 다른 동물인 돼지·소·닭을 보면서는 그저 음식 재료로만 생각해 왔던 것이죠. 조금이라도 그것들이 투투와 같은 통증을 느끼고 감정을 가진 동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차려고 하면 회피·정당화·대상화·합리화 등 온갖 방어기제를 작동시키면서 '육식하는 나'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생매장 당하는 돼지들을 보면서 동정심을 갖다가도 저녁 식사 시간이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식탁 위에 올린 돼지 삼겹살을 맛있게 먹었죠. 같은 동물을 두고 살처분당해 마땅한 동물과 아기 소와의 이별에 절망하는 동물로 이분화 하는 기자의 사고방식과 시선이 저의 사고방식과 시선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알고는 제 자신이 갑자기 역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고기를 끊으려 노력했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강아지인 투투와 돼지인 베이브가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 돼지인 베이브와 오리인 도널드는 또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 오리인 도널드와 사람인 나는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 생각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못 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이성애주의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동성애를 비정상화하고, 이성애를 정상화해왔던 것처럼 육식주의 이데올로기가 채식이나 비육식을 비정상화하고, 육식을 정상화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성중심의 근대 철학이 몸과 정신·여자와 남자·비정상과 정상·동성애와 이성애를 엄격하게 분리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동물이기도 한 사람이 동물과 동물이 아닌 것, 동물을 또 다시 식용동물과 반려동물로 나누어 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이기도 한 사람이 또 다른 동물들을 농장동물, 실험동물, 오락동물, 전시동물, 모피동물, 반려동물로 분류하고 착취해 온 과정이, 같은 사람을 유색인종, 장애인, 여성, 동성애자 분류해 억압한 과정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동물의 권리를 생각한다는 것과 사람의 권리를 생각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당장 모든 육식을 중단하기가 어렵더라도 최소한 소비를 줄여나가자 다짐하고, 동물에 관한 분열된 저

의 인식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성애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지만,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결국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의 의미와 기쁨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육식주의 이데올로기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이유들이 충분했고, 그리하여 노력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더군요. 가부장제와 이성애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살처분을 앞두고 이별하는 어미 소와 아기 소를 묘사했던 그 기사를 보고 시작한 공부와 비육식 시도가 2년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라면, 떡볶이, 김밥 등 즐겨 먹는 대부분의 음식에 고기가 들어가 있고(심지어 코카콜라 안에도 고기 부산물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고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음식을 찾고 만들어 먹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100% 비육식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여전히 가죽으로 만든 운동화와 가방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마음 한편이 무겁고, 자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지요.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소비를 줄이고, 중단하고자 노력할 작정입니다. 그래야 엄마로서 딸인 투투에게 그리고 아들인 비비에게 당당한 엄마 노릇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레즈비언으로서, 저와 비슷한 이유로 고생하고 억압당하는 동물들에게 덜 미안할 것 같습니다. 돼지와 개가 다르지 않고, 개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제가 잘 해나가는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제가 걷는 길에 길동무가 되어 주신다면 더 없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 박김수진 최근에 트위터에서 만난 좋은 분들과 함께 <동물권연구활동모임 공존, <http://blog.daum.net/animalrights>>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http://blog.daum.net/lesbian2013>>라는 작은 단체를 만들어 운영 중입니다.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

나영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사무국장

쿠바를 처음 만난 건, 애인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을 때쯤이었다. 2007년 8월 15일 광복절. 자정이 조금 넘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던 나는 부슬부슬 내리는 빗속에서 까만 닥스훈트 한 마리를 만났다. 부슬비에도 몸이 제법 젖은 채로 나를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는 녀석이 귀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너 여기서 뭐하니?”하고 말을 걸었더니 녀석은 기다렸다는 듯 꼬리를 치며 내 옆으로 다가왔다. 8월이지만 비가 내려 제법 쌀쌀한 새벽 공기가 걱정되어 일단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재울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마침 집에 외국에서 온 손님도 있고 해서 그냥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오는데, 어이없게도 이 녀석은 마치 자기가 나를 인도하기라도 하는 듯 한 번씩 내가 잘 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앞장서서 가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급기야 우리 집 앞까지 와서는 내가 문을 열자 자기가 먼저 쪽 들어가 버렸다.

결국 우리는 일단 녀석을 따뜻한 물로 씻기고 참치를 한 캔 먹인 다음, 다음 날 유기동물로 신고하기 위해 병원에 데려가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이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침을 흘리고 부쩍 힘들어하던 녀석이 병원에 도착하니 동공이 거의 풀린 채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동물병원 의사가 호들갑을 떨며 유기견이면 뭔가를 잘못 먹어서 금속 중독이 되었을 수도 있다면서 온갖 검사를 다하더니 결론은 심장사상충 3기라고 했다. 순식간에 수십만 원의 병원비가 나왔다. 하지만 심장사상충 3기면 자칫 죽을 수도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로 그냥 유기동물로 맡길 수는 없었다. 결국 우리는 녀석을 치료하기로 하고 다시 집으로 데려왔다. 그야말로 우리는 녀석에게 ‘찍힌’ 것이었다.

며칠 후 애인은 살겠다고 우리 집을 앞장서서 찾아 들어온 이 녀석의 소식을 친구들에게 전했고, 친구들은 병원비를 함께 모아 주었다. 다행히 친구들의 지지와 걱정 속에서 녀석은 건강을 잘 회복했고 최고의 말썹꾸러기가 되었다. 그렇게 한 바탕 소동을 치르며 쿠바가 온 지 2개월 후, 동물구조협회 사이트에서 코난을 만났다. 쿠바와 같은 닥스훈트였지만 털이 긴 장모 중에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꼬맹이였다. 처음 코난을 만나러 갔던 날, 관리사의 장갑 낀 손에 들린 채 정신없이 꼬리를 흔들며 온몸의 비듬을 훑날리던 코난의 모습은 그야말로 더럽고 못생기기 짝이 없었지만 집에 오자마자 녀석은 쿠바와 우리 모두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까불이 막내가 되었다.

그리고 이듬 해 12월 말에 눈이 잔뜩 쌓인 추운 골목길에서 우리 집 마지막 식구 산띠를 만났다. 처음에는 한 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정신없는 닥스훈트 두 마리와 이 소심해 보이는 고양이와 과연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웬걸, 산띠는 특유의 무심함과 결정적 한 방으로 첫 날부터 가볍게 무림을 평정하고 자연스럽게 영역을 확보했다. 그렇게 우리 다섯은 식구, 아니 반려공동체가 되었다.

함께 돌보아야 할 생명이 셋이나 된다는 건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뻘한 경제사정에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녀야 하는 우리는 매번 충분한 넓이의 거실이 있는 집을 찾아다녀야 했고, 한 번은 계약서 작성 직전에 반려동물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이 취소되기도 했다. 동물들이 병에라도 걸리면 상당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었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어느 날 녀석들이 저질러 놓은 온갖 말썹으로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을 때면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주저앉아 울 때 옆에 다가와 내 손을 가만히 훔아주는 녀석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늘 서로에게 고마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함께 살며 우리는 종종 한강에 놀러 나갔고, 여행을 다녔다. 집회도 함께 나갔다. 때로는 골목 구석구석을 다니며 이웃과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다. 어느 덧 함께 산 지 5년이 되어가는 지금, 우리는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아도 어느 덧 눈빛과 행동만으로도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분이 어떠한지 서로 알 수 있게 되었다.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수도 없이 들어온 ‘가족이 사회의 기본단위’라는 이야기는 어느 덧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혈연 가족이 아니면 우리 모두는 그저 개별자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되고는 한다. 게다가 그만큼 우리 사회는 가족 중심적이어서 실제로 살면서 가족을 구성하지 않으면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지원 체계로부터 소외되고 때로는 질병이나 외로움으로 인해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더, 우리는 가족만이 아닌 다양한 관계와 사회적 공동체들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혈연가족을 구성하지 않거나 혼자 사는 사람들, 동성애인 또는 이성 애인과 동거하며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보면 흔히 사람들은 ‘자식이 없어 외로우니 동물을 키우는 거겠지’, ‘그래도 자식이 있어야 늙어서 보살핌이라도 받지’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자녀가 단지 외로움을 달래거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대리물이 아니듯,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따뜻한 위안을 얻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나누며, 아프고 힘들 때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반려 공동체이다. 그리고 이 관계는 우리끼리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는다. 쿠바가 우리 친구들의 도움으로 살아날 수 있었듯 우리의 친구, 이웃들과 그들의 반려동물들이 필요할 때 서로를 돌보고 만나며 또 다른 관계들을 확장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의 반려공동체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친구, 이웃들과의 더 큰 반려공동체 네트워크로 확대된다.

나는 우리의 이런 관계가 혈연 가족만을 중심으로 한 배타적인 관계들을 넘어, 인간들만의 관계를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들 속에 함께 살고 있는 존재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지지가 되는 더 멋진 사회적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지난 11월 말, 마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성소수자 주민 모임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가 성소수자들이 이웃으로 함께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사회적 후원 과정을 거쳐 마포구 관내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 신청을 한 두 개의 현수막에 대해 마포구청이 게시를 거부한 일이 있었다. 그 두 개의 문구는 ‘지금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 열 명 중 한 명은 성소수자입니다’와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였다. 단지 ‘함께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건네는 이 현수막에 대해 마포구청은 ‘살고 있다는 문구가 혐오감을 줄 수 있다’,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 ‘문구가 과장되고 직설적이다’는 이유를 들어 성소수자들에게 주민으로서의 존재를 드러내지 말 것을



요구했다. 아프다고, 말썽부린다고 버려지고 방치되었던 생명들과 함께 살면서, 그리고 이번 사건을 겪으며 마포구청이 자랑스럽게 내건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라는 문구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산다’, ‘더불어 산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서 애초에 고려되지 않는 존재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되었다. 진정으로 함께 산다는 것은 어떠한 소외되고 버려지는 존재도 없이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아닐까. 그 존재가 사람이든, 사람이 아닌 동물이든 말이다.

※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페미니즘학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에서 동네 친구들과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라는 모임도 함께 하면서 동성 애인과 반려견 두 마리, 반려묘 한 마리와 재미나게 살고 있어요. :)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고
고양이는 혐오하는가**
〈호리와 함께 살아가기〉

란 | 본 상담소 여성주의 상담팀

하얀색 털에 귀 끝과 꼬리는 노란빛으로 빛나고 새파란 눈은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들게 생긴 ‘호리’. ‘호리’를 처음 만난 것은 날이 무더워지던 6월 즈음이었다. 어쩌면 그 전부터 ‘호리’는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호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시점이 6월 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4년 전 쯤 일본에 갔다가 낯선 모습을 보았다. 저녁을 먹으러 길을 걸어가는데 길가에 예쁘게 담겨진 과일과 생선회가 있었다. 낫설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한참을 쳐다보았는데, 담겨져 있던 접시가 예쁘기도 했지만 과일과 생선회를 담아둔 모양이 참 정성스러웠다. 왜 저렇게 과일과 생선회를 두었을까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길고양이를 위한 누군가의 배려였다. 길고양이들을 위한 밥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나에게 길고양이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누군가의 마음은 깊은 여운을 주었다.

사실 나는 일종의 고양이 혐오자(?)였다. 어렸을 때 무서운 이야기 100선등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고양이는 목숨이 일곱 개인데다가 죽어서도 복수하는 무시무시한 모습이였다. 길고양이들이 눈에 안 보였던 이유도 고양이 혐오에서 비롯된 무관심 때문이었다. 그런 내 눈에 일본에서의 낯선 경험 이후, 길가를 다니는 고양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길고양이들은 그곳에 있었다. 자동차 밑에, 집들 사이 담벼락위에,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00횃집 앞에.

‘호리’는 상담소에서 처음으로 밥을 챙겨준 길 고양이였다. 상담소 외부 창고 지붕에서



늘어져 자고 있던 ‘호리’를 발견하고 곧바로 토리와 함께 동물병원으로 가서 고양이 사료를 사왔다. 처음에는 어찌나 경계가 심한지 편하게 먹으라고 창고위에 밥그릇을 올려두면 우리가 사무실에 들어갈 때까지 밥 근처에 앉아만 있었다. 차츰 서로의 얼굴이 눈에 익어가면서부터는 사료봉투 소리만 들려도 어디선가 나타나 자리를 잡고 앉아 밥을 기다렸다. 우리가 서서 밥 먹는 모습을 구경해도 허겁지겁 밥

을 먹었다.

여름철 장마가 시작될 즈음에는 창고 안으로 밥그릇을 옮겨두었다. 가림막 없는 창고 위에서 장맛비를 맞으며 밥을 먹게 할 수는 없었다. 상담소 대부분 활동가들도 창고 안으로 밥을 주는 장소를 옮기면서 호리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상담소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니 활동가들의 동의도 필요한 일이었다. 커다란 박스에 동그란 구멍을 뚫고 안에 신문지를 잘게 잘라 넣어둔 폭신한 자리도 만들어주었다. 파란 눈에 블랙홀마냥 빠져버리겠다며 유치한 발상의 ‘호리’라고 붙여준 이름도 제법 알아들었다. ‘호리’ 부르면 한쪽 귀가 살짝 내려갔다가 쳐다보는 정도랄까.

‘호리’의 밥을 챙겨준 이후로 더 많은 길고양이들이 상담소를 찾았다. 길고양이들간의 네트워크가 잘 되어있는 모양인지 수시로 새로운 길고양이들이 다녀갔다. ‘똥땡이’ 길고양이부터 ‘청소녀’ 길고양이까지 창고 안에 놓아둔 밥을 사이 좋게 나눠먹었다. 그런데 ‘똥땡이’가 나타난 이후부터 ‘호리’가 상담소를 잘 찾지 않았다. 아마도 영역다툼에서 밀린 듯싶었다. ‘똥땡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고올 리가 없었다. (그래서인지 ‘똥땡이’ 사진은 한 장도 남겨두지 않았다)

최근에 나타난 ‘청소녀’는 이제 막 독립한 길고양이로 보인다. 검은색 고등어 무늬에 초록색 눈이 어찌나 반짝이는지, 사람도 많이 경계하지 않아 창고에 있다가 우리가 다가 가면 멀리 도망가지도 않고 앉아서 쳐다본다. ‘호리’를 위해 만들어뒀던 폭신한 자리를 ‘청소녀’는 무척 좋아한다. 추운 날씨에 그마나 그곳이 따뜻한지 밥이 다 떨어졌나 보려고 창고 문을 열면 박스 안에 있다가 후다닥 창고 창문으로 올라가곤 한다.

또 다른 ‘치즈’ 케이크 무늬 고양이는 상담소 주변 일대에 여러 명의 캣맘(자발적으로 지역 내 길고양이들에게 먹이급여와 구충, 나아가 불임수술 등을 제공하며 적극적으

로 보살피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 캣대디, 케어테어커라고도 함)을 둔 길고양이로 보인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목에 작은 방울 표식을 달고 있어서 사람과 함께 살면서 자유롭게 외출을 하는 고양이인줄 알았는데, 가까이에서 보니 왼쪽 귀에 TNR(Trap-Neuter-Return, 안전하게 포획(Trap)하여 피임수술(중성화, Neuter)을 마친 뒤에 제자리에 방사(Return)하는 것을 뜻하는 국제적인 공용어, TNR를 한 길고양이는 왼쪽 귀를 1cm가량 잘라 표시함) 표시가 되어있었다. 그래서인지 사람을 경계하지 않고 상담소 계단 위까지 따라 올라와 밥을 달라고 칭얼거린다.



호리, 똥땡이, 칭쓰녀, 치즈... 상담소 내 창고를 찾는 길고양이들과 함께 공존한다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사람 위주로 내어진 길, 도로, 자동차들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에게는 낮은 위협이 되기도 한다. 비단 환경문제만이 아니다. 사소하게 여겨져 주변화되어 소외된 것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인간 사이에서 느낄 수 없는 연대와 공감을 느끼게 한다.

마하트마 간디는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수준은 그 나라에서 동물이 어떤 취급을 받는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위대함과 도덕적 수준까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누리는 것들이 누구의 것을 박탈하여 가지게 된 것이라는 일말의 양심과 그에 대한 책임은 필요하다.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는 도둑고양이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주는 길고양이들에게 말이다.

P.S

그나저나 호리가 요새 도동 상담소에 나타나지 않는데, 누군가 보게 된다면 상담소 방문을 권해주세요.

※ 란 동거견 복길이의 앞발냄새를 쿵쿵거리며 맡길 좋아하는 변태. 복길이 앞발냄새는 말아본 사람만이 그 향긋함을 알지요.

나의 건강실천단 이야기

다이어트 갈때기와 똥 빛는 재미

가온 | 본 상담소 회원

안녕하세요? 상담소 회원 가온이에요.

저는 올해 10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8주 동안 참가하였던 건강실천단(이하 건실단)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건실단은 <살림의료생협>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살림 의료생협과 살림병원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우리 동네 병원, 살림의 힘으로 서로 돌보는 건강 공동체”예요. 건실단은 이번이 3기로 고혈압·당뇨·비만·불건강한 식습관을 협동으로 조절하고, 살림병원 주치의 선생님과 건강상담도 하고 운동처방사 선생님이 매주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시는 인기 짱인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어느 날 건실단 3기를 모집한다는 홍보를 보았어요. 거기에는 8주 동안 금연, 금주, 현미채식을 서약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죠. 첫째, 금주 빼고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둘째, 드디어 다시 다이어트 할 때다!

저는 작년에 갑상선 수술 후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의료보험공단에 등록된 ‘만성질환 환자’입니다. 하지만 논문 쓰기 힘들다는 핑계로 거의 매일 맥주나 막걸리를 훌쩍 거리고 있었어요. 많은 양을 마시는 것은 아니지만, 밥보다 술 한 잔이 더 반가운 것은 사실이었어요. 저는 스스로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야’를 증명하고 확인해야겠다는 조금은 절박한 결심이 들었어요.

동시에 ‘내 인생에 마지막 다이어트’를 하고 싶기도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저는 키 155センチ에 70kg정도로 우리 반에서 두 번째로 똥똥한 학생이었어요. 교복치마가 잠기지 않

아서 늘 핀으로 꿰고 다녔고, 치마의 허리춤은 곧 수많은 핀 구멍으로 너털너털 해 졌었어요. 대학에 들어와서 마음적으로 힘든 일을 겪고 매일 아침 등산하고 매일 조깅해서 난생처음 59라는 숫자를 보았을 때, 오오오, 너무 신기하기만 했어요. 운동의 즐거움, 땀 흘리는 즐거움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 뒤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을 계속 50kg 중반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바디’-체지방 측정결과, 저는 경도비만으로 근육은 1.1kg 모자라고, 체지방은 8.9kg이나 더 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번에 주치의 선생님은 갑상선 환자의 몸은 근육을 잘 만들지 못하고 체지방은 더 축적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근육운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운동, 너는 나의 운명?!). 인바디가 제안하는 체중이 되려면, 체지방 8.9kg을 빼서 40kg대가 되어야 하는데, 그건 정말 저에게는 또 한 번 역사를 쓰는 것으로 다가왔어요.

다이어트 갈때기는 힘이 세다

그런데 현미밥과 야채 도시락을 싸다니고, 매일 걸어서 퇴근하는 저의 일상이 주변사람들에게는 그저 ‘다이어트’로 보였나봐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내미는 과자와 빵을 사양하면서 건강실천단을 하고 있다고 해도, 상대방이 ‘다이어트’한다고 이해해버리면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고기 안 먹는다고 해도 육식에 대한 거부로 들리지 않았고, 그저 다이어트 갈때기로 들어가 버리더군요(채식을 하는 제 친구가 여성주의자로 사는 것 보다 채식주의자로 사는 게 훨~씬~! 더 힘들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거 같아요).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방이 ‘다이어트 하면 성격 나빠져’, ‘무슨 다이어트야, 먹고 싶은 데로 먹어’ 하면서 다이어트-반(反)다이어트 드립을 하면, 저는 구구절절 설명할 의욕을 잃고 말았어요. 저 이



래도 여성 억압적인 다이어트를 비판하는 <다이어트의 성정치>를 ‘내 이야기야’ 라며 읽고 여성학에 빠졌던 사람인데, 이걸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이어트 하면 성격 나빠져’라는 말은 내 앞에서 까칠하게 굴지 말라는 뜻 같았고, ‘먹고 싶은 데로 먹어’라는 말은 ‘나는 내가 먹고 싶은 데로 먹는데, 네가 저기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갈등과 긴장을 일으키지 말라’는 뜻 같았어요(이렇게 해석하면 저 진짜 까칠한가요?) 제가 열심히 건실단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동료가 사무실에서 과자를 집어주면서 “나 혼자 망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아, 그것이 주변인이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느끼는 진실이었나 봅니다. 저는 저 혼자 살겠다고, 저 혼자 날씬해지겠다고 설치는 트러블 메이커가 된 것 같았어요. 이런 외로움은 건실단 멤버들과 함께 모여서 어려운 점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없었으면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실단 내내, 내가 운동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내 몸을 단련하는 과정이 ‘다이어트’로 모두 수렴되는 게 왠지 많이 억울했어요. 배가 안 고프데도 음식을 먹는 나의 식탐을 조절하고, 온 몸에 근육이 아우성쳐도 빠지지 않고 운동하는 나의 노력, 이것이 모두 다이어트란 말입니까?! 어떤 여성분이 몇 년이 넘게 30kg 이상 감량하면서 “큰 해방감”을 느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해방감(!)은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내가 눈앞에 과자의 유혹을 물리치고, 또 운동을 빼먹고 싶은 수만 가지 핑계를 물리치면서, 매 순간 인내하고 성취한 그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녕 몸무게 숫자와 ‘다이어트’, ‘44사이즈’ 이런 언어밖에 없단 말인가? 한국사회처럼 어디를 가든, 서로 친하든 안 친하든 여성이 여성의 몸매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사회에서 다이어트 세계 밖의 다른 신세계는 없을까. 그 신세계는 “나 혼자 건강할 수 없다”며 운동화 끈을 매어주는 친구들로 가득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친구가 되고 싶어졌어요.

동 빛는 재미

저는 이번에 건실단을 하면서 ‘나부터 건강하자’는 약간의 신세계를 맛본 것 같아요. 제가 술을 좋아하는 것을 아는 한 친구는 제가 금주와 소식(小食)을 하고 있다고 하자,

‘금욕생활’ 중이냐고 물었어요. 정말 건실단 첫 주에는 막걸리를 사지 않고 슈퍼마켓을 지나오는 게 너무나 아쉽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어느 덧 허브티 향기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야채와 채소가 맛있고, 현미밥은 구수하고, 자기 전에 공복감은 고통스러웠다가 점점 반가웠어요. 무엇보다 변비가 있었던 제가 거의 매일 똥다운 똥, 예쁜 똥을 빚는 기쁨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똥 빚는 즐거움에 빠진 저는, 아기들의 성장과정 중 ‘항문기’를 또 하고 있는 것 아닐까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도 케이크 앞에서 고민하다 한 조각 먹었지만, 신세계에 대한 동경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 가운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이 더 귀하다는 주문을 외우며 살고 있습니다.

사주명리학 왕초보 입문기

송이송 | 본 상담소 회원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폐호흡을 막 시작하면, 그 때 천지의 시간성이 첫 숨과 함께 몸(오장육부)에 새겨진다. 사주명리는 몸이 간직한 이 시간의 기운이 그 사람의 삶 전반에 작용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학문이다. 오장육부에 찍힌 시간적 기운은 그 사람만의 독특한 패턴으로 차별화 된다. 그리고 이 몸의 개별 패턴은 감정과 행동양식 그리고 삶의 인연조건을 다채롭고 구체적으로 창조해낸다.”

5주 과정의 ‘왕초보 의역학’ 첫 강의였던 <사주명리학 개요> 자료의 첫 문단은 이렇게 시작했다. 아마도 이 문단을 몇 년 전에 접했다면 “이게 무슨 비과학적인 이야기람.”하면서 코웃음을 쳤을 것 같다. 그런데 시간과 돈을 내어 그 먼 곳까지 달려가 고개를 주억거리고 듣고 있게 되다니. 인생이란 참 재미진 것 같다.

“모든 사람은 병(病)을 안고 태어난다.”

동의보감 시작 부분에 나온다는 이 문장, 첫 강의에서 들었던 말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문장이었다. 선생님은 이 문장을 인용하며 인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주와 지구의 축이 어긋나 있듯 우주의 기운을 타고 나는 인간 또한 기운이 어그러질 때 태어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결핍과 병의 씨앗을 안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였다. 처음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21세기 소년'의 작가인 우라사와 나오키의 또 하나의 유명한 작품, '플루토'라는 만화를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했다. 이 만화는 미래의 로봇 이야기를 다룬 내용인데, 한 박사가 만든 완벽한 로봇은 한 번도 깨어나지(작동을 시작하지) 못한다. 너무도 완벽하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 합리적인 사고의 경우의 수를 회로에 넣었기 때문에 그 로봇은 그 중 어떤 치우친 감정이나 생각을 갖지 못해서 영영 작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아무튼 어려서부터 각종 병을 안고 살아가며 약한 몸에 대한 원망과 스트레스를 키워 왔던 나에겐 “모든 사람은 결핍이 있고 병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 특히 몇 개월 전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드러기 발병 이후로 음식을 가리고 몸을 사리며 받아온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 날 밤은 “그래, 인간은 다 병을 갖고 태어나는 거래잖아, 내가 아픈 건 내 잘못이 아니야!”라면서 몇 개월간 참아왔던 치즈스틱(!)과 흑맥주(!)를 먹고 행복에 젖어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여지없이 찾아온 두드러기에도 그 전보다 훨씬 너그러운 태도를 취할 수 있었다.

좋은 사주 없고 나쁜 사주 없다.

사실 ‘사주를 본다.’라고 하면 다들 자신의 사주가 좋은지 안 좋은지 부터 궁금한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강사였던 안도균(도담)선생님은 사주명리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길(吉)이 흉(凶)이고 흉이 곧 길이다.’라는 이치를 깨닫고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부모 복이 들어 있다고 하면 좋고 길한 것 같지만 부모 복으로 인해 의존적이 되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는 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인생은 이렇듯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변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길(吉)함과 흉(凶)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다만 어떤 국면에서 다른 국면으로 나아갈 뿐이라는 것이다. 어떠한 행운이 들어왔을 때 그 기운이 나에게 좋은 사건을 만들어주었다고 해도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또 다른 나쁜 국면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살면서 겪을 건 어차피 다 겪게 된다!’는 게 선생님의 지론이었다. 가끔 태어나는 아기에게 ‘좋은 사주’를 주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골라잡아 제왕절개를 무리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이럴 때 결국 부모의 욕심이 아이에게 흘러가는데 이게 어찌 좋을 수 있겠냐면서 순리대로 태어나 어떤 기운이든 받아 안고 살면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 얻은 기운을 잘 쓰면서 살아가는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했다. 그리고 그것이 사주명리학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라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신청했던 나는 어느새 이런 이야기들에 고개를 열심히 끄덕이며 사주명리학의 매력에 빠져들어 갔다.

나는 금, 너는 토?

시	일	월	년
	★		

사주팔자는 기본적으로 이 8개의 칸에 들어간 글자들이 가진 기운을 가지고 해석을 해내는 것이다. 그 중 ★표가 쳐져있는 일간에 들어가는 기운이 나의 기본을 구성하는 씨앗과 같은 것으로 나의 기운의 벡터라고 할 수 있다. 나의 경우는 경(庚)금(金)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바윗덩어리에 해당하는 기운이라고 할 수 있고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한 글자로만 모든 게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자리에 수(水)가 엄청나게 많아서 나는 말하자면 ‘물속에 가라앉은 바윗덩어리’라고 할 수 있겠다. 이걸 보자마자 내가 몸이 무겁고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하체의 순환이 되지 않아 만병에 시달렸던 것이 설명되는 것 같았다. 곧바로 함께 살고 있는 애인의 사주도 찾아보니 기(己)토(土), 텃밭의 기운이었다. 텃밭의 기운은 비옥하게 잘 가꾸어내는 기운에 비유될 수 있다는 설명을 보고, “피~”하고 입을 삐죽였다. 웬지 내 사주는 나쁜 것 같고 애인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었다. 아무리 좋은 사주 없고 나쁜 사주 없다지만 바윗덩어리보다는 텃밭이 더 좋은 것 같은 이 느낌적 느낌을 어찌랴.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갈수록 각 글자가 가지고 있는 기운을 그렇게 간단히 해석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옆자리에 어떤 글자가 있는 지에 따라 달라지고 또한 글자간의 관계라는 것이 있어서 나머지 글자들과의 관계에 따라 해석해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바위, 토=텃밭이라는 식의 천편일률적인 해석으로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적어지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왕초보라서 행복해요.

그렇지만 이제야 막 입문하는 단계인 나는 사주의 깊이를 알게 되는 경지까지 기다릴 틈이 없었다. 그래서 초기에는 강좌를 들고 오기만 하면 그날 배운 걸 이용해서 애인 자랑 자랑 왜 잘 맞을 수밖에 없는지를 찾아내는 재미에 푹 빠졌다. 예를 들면 애인의 사주에 화(火)가 4개나 들어있는 것을 보고는 “나는 수(水)가 많으니까 내가 너의 불(火)을 꺼뜨려서 네가 내 앞에서 순해지는 거야!”라며 신나한다든지, “나의 벡터는 금(金)이라

서 불로 제련이 필요한데 내 사주에는 화(火)가 없어. 너의 불(火)이 나를 제련해 주어서 내가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거야!”라면서 의미부여를 하며 그저 신이 났다. 믿거나 말거나, 나는 이런 것에서 괜한 신기함과 신남을 느꼈다. 사주 공부하는 지난한 과정에 이런 재미도 있어야 하는 거지. 하지만 사주팔자라는 것이 참 복잡한 것이어서, 이렇게 간단히 설명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8개의 칸에 각각 어떤 글자가 들어가는지, 어느 자리에 위치하는지, 옆자리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해가 지나감에 따라 대운 등이 달라지며 합이며 충이며 등등의 것들도 적용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주팔자는 총 57만 가지의 수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껏 누리왔던 소소한 재미들은 사실 왕초보이니까 가능했던 것이다.

내 운명은 나만이 알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다.

사주의 경우의 수가 57만 가지라는 건 결국 내 운명은 나만이 알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닐까 싶다. 아무리 사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내 사주에 깃든 기운이 실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만큼 세세하게 서사를 엮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사주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이런 기운을 읽음으로써 내 인생의 서사를 관통하여 엮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한 것이 아닐까. 또한 이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도 결국 나 자신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이 사주해석을 궁금해 하고 점을 치는 궁극적인 이유는 내 삶을 알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잘 살아내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이다. 나 또한 그렇기에 앞으로 사주명리학 공부를 계속 하고 싶다. 그리고 사주팔자에 대한 좋고 나쁨의 판단을 넘어서서, 내 인생에 흘러들어오는 기운을 ‘잘’ 살아가기 위한 기운으로 만들어가는 지혜를 얻게 되길 기대해 본다.

※ 송이송 사주명리학 입문 과정에서 힐링되고 있는, 계속해서 더 공부하고픈 여자사람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이성애 관계에만 대입할 수 있는 해석틀을 보면 신경질이 나는 레즈비언이기도 합니다.

「친족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시선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잔인한 나의, 흠> 감독 **아오리**

interviewer_나랑 (본 상담소 부설 열림터 활동가)

이번 호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손님은 다큐멘터리 영화 <잔인한 나의, 흠>의 감독 아오리님입니다. 아오리 감독은 친족성폭력피해생존자의 경험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인 이 영화를 통해 친족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화를 연출하셨다는데요. 아오리 감독으로부터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상담소와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자기소개를 해 달라.

A 2009년에 다큐멘터리 학원을 졸업하고 영화 '버라이어티 생존토크쇼' 조감독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 때부터 상담소에서 하는 <작은 말하기>에 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담소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작은 말하기>에서 공간에 대한 공포, 가해자와 비슷한 사람들에 대한 공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기억이 떠올랐고, 그 기억이 나를 흔들어 놓았다. 어느 날 <작은 말하기>에서 사람들이 "여기는 가해자 집입니다. 여기는 가해자 집 백 미터 앞입니다." 이런 풋말을 써놓아 가해자들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상상에 불과하다며 씩씩하게 마무리한 적이 있었다. 그 때 내가 대신 복수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폭력경험이 지금의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니까, 내가 통쾌하게 대리만족 시켜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영화 '놈에게 복수하는 법'을 찍었다.

Q 영화 <잔인한 나의, 흠>을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A 지인에 의한 성폭력에 관한 주제로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여성인권영화제에서 ‘놈에게 복수하는 법’을 상영하고 감독과의 대화를 하는 데 어떤 분이 왜 감독 자신이 주인공이냐고 묻길래 영화에 참여할 사람이 없었다고 답했다. 그랬더니 지금 <잔인한 나의, 흠>의 주인공인 친구가 자신이 영화에 참여하고 싶다고 연락처를 남겼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보니 그 친구는 나를 도와주고 싶었던 게 우선이었는데, 나는 그 친구가 굉장히 하고 싶어서 영화를 찍겠다고 한 줄 알았다. 결국 우리가 서로를 위해 이 영화를 만들어 준 것이다.

Q <잔인한 나의, 흠>은 어떤 영화인가?

A 이 영화는 친족성폭력에서 시작하는 가족 이야기다. 가족들이 친족성폭력 피해자인 그녀의 말을 진실이라고 믿지 않고 푹푹 묻쳐 그녀를 내치는데, 그 과정에서 주인공 친구가 가족과 부딪치면서 자기 스스로 성장하는 이야기이다. 가족이라는 공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전한 공간일까? 가족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버려야 하는 게 가족이라면 그건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대개 가족을 통해 ‘믿음’이라는 가치를 배우고 성장하는데, 그 가족이 믿음이라는 걸 깨버린다면, 오히려 가족 바깥에서 믿음을 주는 사람이 또 다른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영화는 바로 그런 이야기이다.



Q 주인공과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관계는 어땠나?

A 개인적으로는 잘 맞는 것 같다. MBTI가 비슷해서 그런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설명 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편이다. 딱 한 번 갑자기 이 친구가 갑자기 화를 내며 촬영을 거부

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무마해서 넘어갔지만 이후 왜 그랬는지 고민을 해봤더니, 이 친구가 그동안 어떤 설명이나 납득도 없이 가해자로부터의 폭력을 받아들여야 했었고 그 경험 때문에 자기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에 매우 민감해져 있었던 거다. 그런데 내가 그 친구의 이야기도 제대로 듣지 않고 판단해 버린 것이다. 이제는 주인공 친구의 이러한 상황과 경험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지내고 있다. 이 관계가 영화가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지속될지 나도 궁금하다. 영화라는 목적 없이 다시 만나도 내가 주인공 친구와 잘 맞으면서 지내게 될지, 서로 부딪칠 일이 생기면 내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지 안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나는 활동가이면서 동시에 감독이기도한 캐릭터다.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를 상영했을 때 주인공이 혹시나 상처받지는 않을까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걱정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영화가 어떻게 해야 잘 될까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조금 찢린다. 주인공이 영화 촬영 중 재판을 진행했는데, 영화를 위해서라도 가해자에게 유죄가 반드시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 그런 마음을 주인공에게 들키긴 싫었다. 그래도 활동가와 감독이 짝꿍된 캐릭터인 내가 주인공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옆에 있었던 것밖에 없지만 옆에 있다는 게 엄청난 힘이 된다는 걸 알고 있다.

Q 올해 '9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는 영상으로 말하기로 진행되었는데 작품들을 보고 어땠는지 궁금하다.

A 성폭력이 발생하는 공간에 대한 공포감이 공감되는 작품이 있었다. 참가자 중 한 분이 엄마가 집에서 빠져나갔을 때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비어있는 그 공간에 대한 공포감을 영상 작품에서 표현했는데, 그 작품을 보면서 나도 예전에 외할머니 댁에서 가해자와 같이 있을 때, 가해자의 동선이나 숨소리까지도 나의 살들이 다 기억하고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동안 잊었던 그 공포감이 고스란히 되살아나기도 했다.

영상 작품들을 보고 어쩌면 성폭력에 대한 영화를 내가 아니라 성폭력생존자말하기 대회 참가자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었다. 영화 '놈에게 복수하는 법'을 거짓말로 만든 것 같기도 했다. 깊이 다루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두 영화를 만들면서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를 표현할 때 왜 굳이 관객들에 설명을 해줘야 하나,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피해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 한 참가자의 작품을 보면서 저렇게 리얼

하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싶었다. 그 작품에서 표현된 것처럼 친족성폭력생존자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것을 내 영화에서도 보여주고 싶다.

Q 언제쯤 어떻게 영화 <잔인한 나의, 흠>을 볼 수 있는지? 관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주인공에게 가장 힘이 되는 공간이 어디일까 지지해줄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다보니 서울국제여성영화제더라. 2013년 4월에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상영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때를 목표로 시기를 맞추고 있다. 관객들이 공감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친족성폭력피해자를 보는 일반적인 시선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친족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오랜 기간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일이 성폭력인지 모를 수도 있다는 사실 등, 친족성폭력피해의 특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했으면 좋겠다. 참, 마지막으로 영화 후반작업 애니메이션과 음악, 번역 등의 비용이 필요한데 여성단체들이 미리 상영 예약을 잡아두고 선투자를 해주시면 어떨지 제안해보고 싶다. 현재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에서 해피빈 모금함(happylog.naver.com/yeolim)도 열어주신 상태이다. 많은 지지와 관심, 후원을 부탁한다.

- 영화 <잔인한 나의, 흠> 블로그 blog.naver.com/movie_so
- 후원계좌 하나은행 298 910612 46607 (최미경)

{ 사귀는 사이에도 성폭력이 있을 수 있나요?

본 글은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기사
“〈남자·여자다움〉 강요하는 사회가 낳은 폭력(2012.09.06)”을 재구성 한 것입니다.

Q 저는 최근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며칠 전 평소처럼 데이트를 하던 중 남자친구와 함께 모텔에 갔습니다. 하지만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아서, 오늘은 성관계를 하지 말자고 남자친구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런데도 남자친구가 제 말을 듣지 않고 강제로 밀어붙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싫었지만 이전에도 남자 친구와 몇 차례 성관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이후 자꾸 그 일이 생각나 가슴이 답답하고, 남자 친구 만나는 것도 편치 않고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From 불편이〉

A 안녕하세요. 불편이님. 보내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최근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고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불편이님의 고민과 걱정은 상담소에도 문의가 많이 오는 일종의 '데이트 성폭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편이님처럼 데이트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믿었던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무시한 것에 대한 배신감과 상처를 호소합니다. 이미 성관계를 맺는 사이여서 자신의 경험을 성폭력이라고 명명하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연애 관계를 포함해 서로 성적인 친밀감을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성폭력이 발생해도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공개하는 일은 드뭅니다. 성적인 관계나 행위는 당사자들만 공유하는 사생활인 탓에 외부에 알려지기 어렵고, 불편이님의 경우처럼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불쾌한 성적 행위로 인식하고 넘어가는 일도 많습니다. 또 자신이 겪은 일을 성폭력으로 인지하더라도 성관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여전히 여성에게 도덕적 비난이 집중되는 현실 때문에 사건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유발하는 ‘남자다움’-‘여자다움’

데이트 성폭력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별 규범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남자다운 남자’와 ‘여자다운 여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지요. 이러한 기대와 역할 수행 강요는 개인의 다양한 가능성과 특성을 무시한 채 성별 규범에 따라 행동하도록 강요합니다. 때문에 감정 절제, 강한 육체, 책임감 등을 요구 받으며 자라온 남성들은 자신의 약한 모습이나 감정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 탓에 많은 남성들이 사귀는 사람과의 의사소통조차 차별적이고 폭력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여성은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로 성장하길 강요받습니다. 동시에 여성은 타인을 정서적·물리적으로 돌보는 역할을 하도록 요구받지요. 결국 타인(남성)에게 보호 받으며 (남성을) 보조하는 위치를 강요받는 셈입니다.

이러한 성별 규범 안에서 성장한 여성과 남성은 어떻게 될까요? 각자 다른 언어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생겨, 결국 데이트 관계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리드하고, 여성은 남성을 보조하거나 돌봐주는 ‘이성에 연애각본’이 구성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은 많은 경우 이런 ‘연애각본’ 안에서 생기는 오해로 시작됩니다. 실제 데이트 성폭력 사건을 살펴보면, 가해자는 피해자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며 자신의 행위를 성관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당사자 간의 견해 불일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성적 행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열 번 짚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이나 “여성의 NO는 진짜 NO가 아니다”라는 속설은 여성의 거부 의사가 진심이 아니거나, 거부 의사가 있더라도 밀어붙이면 뜻을 굽히게 되어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역시 이런 사회적 인식과 자신의 불쾌한 감정, 상처 사이에서 자기의 경험을 어떻게 명명할지 혼란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적 행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성별규범이 만연한 사회 안에서는 데이트 상대에게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렵고 의사소통이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성적 행위에서도 서로의 욕구와 기분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일방적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데이트 성폭력뿐 아니라 스토킹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스토킹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토킹이라고 하면 남녀간의 ‘애정 문제’ 정도로 생각하거나 몇몇 유명인들의 사례만 떠올립니다. 현행법 또한 처벌의 수위가 미미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고백을 거절했음에도

?! 문득 떠오른 질문

지속적으로 문자나 전화, 방문 등의 접촉을 통해 만나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주변에서 빈번히 일어납니다. 게다가 당사자의 주변인들이 이러한 행위를 사랑에 대한 끈기 있는 도전이라며 응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구애 행위를 과연 로맨스라고 여길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트 성폭력 해결은 평등한 소통과 관계에서부터

데이트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평소 대화에서 상대방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 견해만 강요하면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관계는 삐걱거리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적 의사소통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물론 남성은 성적인 능력이 탁월해야 하고, 여성은 성적인 관계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문화 속에서 성적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서로에 대한 일상적 소통을 점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편이 넘도 남자친구와의 일상적인 소통방법이나 관계를 평등하게 바꾸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어느 한쪽만이 힘든 상황을 감내하며 상처 받지 않도록 관계를 정리하는 결단력도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데이트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별 규범을 해체하고,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발현하도록 하는 사회구조적인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특히 태어난 순간부터 끊임없이 요구받는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버리고, 타인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을 통해 어렸을 때부터 평등에 대한 감수성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성별에 구애 받지 않고 평등과 소통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야말로 데이트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작지만 큰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From 마도)

{ 쉼터 활동가로 살아가기 }

여름 | 본 상담소 부설 열린터 활동가

왜 쉼터활동을 지원했나요?

처음 열린터 활동가가 되기 위한 면접을 보았을 때 받았던 질문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담소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굳이 쉼터활동가로 일을 하려고 하는지 묻는 것이었다. 나의 대답은 간단명료했다. 사람을 직접 만나면서 지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쉼터활동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열린터 활동가가 된 후 업무연수를 받는 내 생활인들을 만나게 될 날만을 기대했었다. 이렇듯 나에게 생존자들과 함께 하는 일인 쉼터활동가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었다.

생활인들은 나의 힘!

상담소는 정말 업무량이 많은 곳이다. 활동을 시작하고 몸소 깨닫고 있다. 그래도 나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함께 지내는 생활인들이다. 대부분 지루하기 쉬운 회의시간도 열린터 회의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 왜냐하면 생활인들 관련 논의사항을 나누다보면 웃음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뉴스에서 접하는 심각한 사건들 속에 파묻혀 있는 열린터이지만 그 안에서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기에 힘이 난다.

저절로 공감되는 엄마의 마음

열린터 생활인들의 대부분이 십대 청소년들이다. 그러다 보니 외모꾸미기에 한창 집중해있는 생활인들과 열린터 활동가들의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생활



인들이 요즘같이 추운 겨울 날씨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따뜻한 옷보다는 좀 더 날씬하게 보일 수 있는 옷들을 입고 외출하려고 하면, 활동가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추워서 목도리라도 권해보려 하지만 “안 추워요, 괜찮은데요.”라는 짧은 대답만을 남기는 생활인들의 반응에 어쩔 수 없이 체념하곤 한다. 하지만 감기라도 걸릴까 걱정되는 마음 또한 어쩔 수가 없다.

바로 옆에서 치유의 시간을 함께하기 vs 멀리서 돕는 법률 전문가 되기

쉼터활동가로서 생활인들에게 하는 여러 가지 지원 활동 중에서 법률 지원할 때 정말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게 된다. 특히 얼마 전 지원하던 사건이 무죄 판결이 났을 때는 너무 절망적이었다. 그때는 내가 활동가로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도 느꼈다. 내가 지금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을 위해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 걸까, 지금이라도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더 나은 방법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생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다. 여전히 고민되는 부분은 있지만, 활동가로서 이제 막 치유의 시간을 시작하려는 생존자들이 혼자서 막막함을 느끼지 않도록 옆에서 함께 일상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찾게 되었다.

더불어 잘 살기

열린터에는 대략 여덟 명의 생활인들이 지내고 네 명의 활동가들이 주·야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언뜻 숫자로만 보면 생활인들의 숫자가 많은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막상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여덟 명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과 부담감이 참 묵직하다. 십대 청소년들이 대부분인 생활인들의 일상 스케줄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을 정도이니가 말이다. 거기에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을 함께 하다보면 정말 챙길 것들이 참 많다. 어쩌다 깜빡하고 못 챙겨주는 일이라도 생기면 또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정작 생활인은 아무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활동가인 나 자신을 챙기는 일은 자꾸만 뒷전으로 밀려난다. 야심차게 상담소 근처 요가학원에 장기 등록을 해 놓고 얼마간은 잘 다녔지만 그것도 잠시. 야근하느라 시간이 없어 도리어 등록해놓고

가지 못한다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더불어 수강료가 아까워지는 상황에 처해있다. 하지만 활동가가 건강해야 생활인들에게도 건강한 기운을 북돋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며 또 다시 요가시작을 다짐해본다.

함께이기에 가능한 열림터

올 여름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 일주일이 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자리를 비웠던 적이 있었다. 당장 내 몸이 아프니 어쩔 도리가 없었지만, 그래도 함께 하는 활동가들이 없었다면 너무 마음 불편하게 지냈을 것이다. 하지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나의 빈자리를 채워주었던 동료들이 있어서 무사히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고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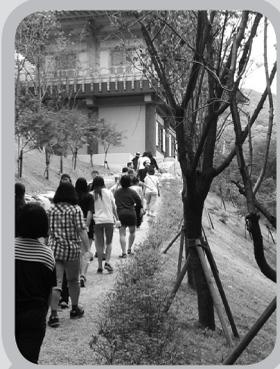
열림터는 생활인들이 인생의 어떤 계기를 갖게 되는 곳이다. 이렇게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곳이니 만큼, 활동가 혼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상황을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네 명의 열림터 활동가들은 늘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 함께이기에 어떤 일도 가능한 곳이 바로 열림터이다.

※ 여름 바쁘게 돌아가는 심터업무 속에 파묻혀서 웃다가 울다가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11개월 차 열림터 활동가입니다.

리미지 하반기 열림터 다이어리

7월 - 치유하는 글쓰기

마음에 있는 생각과 상처를 보듬어 글로 풀어내는 글쓰기 프로그램은 생활인들의 우정을 더 돈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각자 간직하고 있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공감하며 지금의 내 모습을 글로 만들어 내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인생그래프, 인터뷰, 미래일기 등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책은 나만의 작은 자서전이 되었습니다.



8월 - 여름캠프

여름방학을 맞아 열림터는 강원도 오대산으로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1박2일 일정이었지만 월정사 역사투어, 백룡동굴탐험, 동강 래프팅 등 알차게 즐기고 왔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오대산 정기를 듬뿍 받으며 자연과 함께 있던 하루가 참 짝다는 생각에 아쉬웠습니다. 저녁에는 선토끼와 별이 진행되는 게임으로 많이 웃기도 하고 준비한 간식과 각종 상품 등 짧은 시간에 추억은 듬뿍 가져왔답니다!

8월 - 방송댄스

학생이 대부분인 열림터 생활인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몸 안에 있는 에너지를 발산하고, 운동 효과도 함께 기대하며 방송댄스를 시작했는데, 숨겨진 춤 실력에 다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연습하는 걸 보고 있으니 아이돌가수 뺨치더라구요~ 내년에도 하자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인기폭 발인 방송댄스입니다!



2012. 7-12 Diary

7월 - 공연 '락카자' 관람

화려한 퍼포먼스와 조명, 신나는 음악으로 모두 즐거워했던 뮤지컬 관람! 공연이 끝난 뒤 뷔페에서 맛있는 저녁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뮤지컬 후기도 나누고 오랜만에 외식에 들떠 재미있는 수다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7월 - 연극놀이로 하는 비폭력대화

상황극을 만들며 나의 감정과 몸의 상태를 느끼는 '연극놀이 비폭력대화 프로그램'은 생활인들과 활동가들이 서로 나누지 못했던 감정들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생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되었으며 공감의 언어들이 참 많이 나왔답니다.



7월 - 집단성교육

집단성교육은 주말에 진행되어 생활인들이 힘들어 하기도 했지만, 11월초 청소년수련관에서의 숙박 숙박성교육까지 잘 진행되었습니다. 교육도 하고 가을 단풍구경도 함께 할 수 있어 1석2조였지요. 지하철을 타고 오며 찍은 사진을 다시 보는데 교육하러 간 건지 단풍구경 간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11월 - 풍선아트

민들레샘께서 풍선아트 프로그램과 재료 모두 기부해 주셨습니다. '풍선은 불어야 제 맛'이라는 편견을 깨고 다양한 크기, 모양의 풍선으로 꽃과 핸드폰 줄을 만들었습니다. 배우는 내내 신기하기도 하고 완성 뒤에 예쁜 작품으로 남아 생활인들의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2월 - 비즈공예

비즈공예도 프로그램진행, 재료 모두 기부로 진행되었습니다. 예쁜 목걸이와 팔찌를 직접 만들어 나만의 맞춤 액세서리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후에도 재료를 사서 하자는 생활인들의 의견을 들으니 참 알 찬 수업이었네요!

여름 지나고 겨울, 다시보기

있지 | 9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기획단

서울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아스팔트길도 하얗게, 빌딩도 하얗게 도톰한 옷을 입은 것 같다. 겨울이 왔다는 게 실감난다. 유난히 비가 많이 왔던 올여름을 함께 보냈던 그녀들의 안부가 궁금하다. 맨손을 호호 불며 장갑도 없이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그녀들을 처음 만난 것은 6월 말이었다. 소매가 짧은 반팔, 다리가 드러나는 반바지, 얇은 소재의 레깅스 같은 것들을 입고 있었던 것 같다. 서서히 무더워지기 시작하던 초여름 창문 사이로 축축한 바람이 땀을 식혔다. 살갑게 말을 건네는 사람은 없었다. 그때만 해도 그랬다. 상담소 활동가 마도의 설명과 안내에 따라 첫 만남을 가졌다. 우리는 그렇게 조금 어색하고 낯설게 만났다. 10월에 있을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이하 말하기대회)를 향해 함께 걸어가기 위해.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적게는 한 번 많게는 세 번을 만났다. 말하기대회가 열리는 10월 24일까지. 차곡차곡 벽돌을 쌓듯 우리 사이의 거리도 차츰 좁혀졌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또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서로에 대해 아는 것들, 공유하는 것들이 많아졌다. 우리는 조금씩 '공감'이라는 집을 지어갔다. 그동안 할 수 없던 말들, 눈치 보며 꺼냈던 말들이 이곳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드러났다. 꺾꽂이 놀러왔던 얘기들을 불꽃처럼 터뜨렸다. 그 광경을 보며 함께 울었고 함께 웃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말들이 바탕이 됐기에 말하기대회 무대와 전시까지도 올 수 있었다. 갑자기 그녀들이 했던 시시껄렁한 농담, 썰렁한 '드립'들이 생각나 피식 웃음이 난다. 찬바람이 손등을 따갑게 스치는데 그리 춥지가 않다.

듣기 참여자들이 보는 무대와 전시회 이면에는 말하기 참여자들과 기획자들의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숨겨져 있다. 4개월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몸 워크숍과 영상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이번 말하기대회는 영상이라는 새로운 말하기 매체를 시도해 말하기 참여자들이 영상까지 창작해야 했다. 학교를 다니고, 일을 하는 참여자에게 녹록치 않은 작업이었다. 또 거리를 좀 멀었던가. 워크숍에 참여하기 위해 한두 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가야 했다. 폭우라도 쏟아지는 날이면 입을 삐죽대며 툭툭거렸지만 불가피했던 몇 번을 제외하곤 불참한 적이 거의 없었다. 시작 30분 전부터 와서 기다리던 ‘모범생들’도 있었고 아픈 몸을 이끌고 온 ‘열혈 참여자’도 있었다.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녀들의 자세에서 ‘우리’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몸 워크숍에서는 선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몸을 움직이며 내 안의 상처를 돌보는 방법을 배웠다. 잘 쓰지 않는 근육을 써보고 소니 선생님의 ‘힐링’음악에 맞춰 움직이거나 명상을 했다. 아무래도 육체적인 에너지를 소모하다보니 지치기도 했지만 디톡스 주스와 아로마 향초가 있었기에 그 정도가 덜 할 수 있었다. 특히 아로마 향초는 워크숍이 끝난 후에도 참여자들 사이에서 폭발적 인기를 얻었다. 그 향과

맛과 음악이 내 몸에서 어른거리는 듯하다. 어렵פות하게. 선희 선생님의 서툰 한국말도 생각이 난다. 여담이지만, 말하기대회 무대가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서 발그레하게 취한 선희 선생님의 모습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그날 유난히 선생님의 서툰 한국말이 귀엽게 들렸던 건 나뿐일까.

영상 워크숍은 수경, 수목 두 선생님의 도움 하에 이뤄졌다. 기획안을 짜고 카메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참여자들은 단시간에 완성도 높은 영상을 만들



어냈다. 선생님들도 완성도에 놀랐다는 후문이다. 영상 작업을 하며 무거운 장비를 들고 촬영도 하고 복잡한 편집프로그램을 다뤄야 하는 기술적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우리의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하는 우려와 기대였다. 지금껏 말하기대회 준비가 우리끼리의 과정이었다면, 영상과 무대에서 할 말을 준비하는 과정은 보이지 않는 듣기참여자들이 함께하는 과정이었다. 정답은 없었

다. 결국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정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여주자는 것뿐이다.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참여자들이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도 우려와 기대는 나를 안심시킬 줄 몰랐다.

오지 않을 것 같던 말하기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마도와 내가 분주해졌다. 나는 아예 상담소로 출퇴근하며 대회 준비를 했다. 무대 큐시트를 짜고 전시 배치를 고민하고 자질구레한 물품들을 챙기며 대회가 임박해왔음을 되새겼다. 듣기 참여자들의 참가메일이 속속 도착할 때마다 설레기도 하면서 동시에 더 잘 준비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모든 활동가가 퇴근하고 난 뒤에도 쾡한 눈으로 모니터를 보고 또 봤다. 끼니는 김밥이나 간편한 편의점 음식으로 때우는 일이 많아졌고, 마도와 담배 피우는 횟수가 늘어났다. 하지만 하기 싫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마도와 말하기대회를 쩌나게 알게 된 시간이었기에,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그 모든 것에 고맙기까지 하다.

무대와 전시 기간은 나도 모르는 새 빠르게 지나갔다. 무대와 전시가 동시에 시작되는 바람에 그 전날까지 밤늦도록 전시장에서 작품 설치로 골머리를 앓았다. 다음날 아침 일찍 전시장으로 가서 몇몇 작품을 손보고 상담소에 들렀다 바로 무대가 있는 아트레온으로 갔다. 업체로부터 물품을 받고 로비 세팅을 하고 듣기참여자들에게 자리 안내를 했다. 모든 것이 준비된 것이었지만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다. 그날은 어떤 느낌보다 어떤 일을 했는지만 기억난다. 무대가 끝난 뒤 대기실에서 참여자들을 보자 그제야 말하기대회 당일이라는 게 실감났다. 끝내 내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를 제외하곤 아무도 울지 않았다. 그녀들은 울음 그 이상 혹은 그 이하의 감정을 받은 듯했다. 그녀들과 함께 한 뒤풀이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화장도 다 번지고 눈엔 졸음이 가득했지만 우리는

동이 트도록 신촌거리를 누볐다. 양손에 꽃다발을 한 아름 안고서.

인사동 전시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정성스런 방명록과 메시지를 남겨 주었다. 작품에 꽃을 갖다 놓는 사람도 있었고 눈물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 전시장만 쓱 둘러보고 나간 사람도 있었다. 좋은 듣기참여자 나쁜 듣기참여자는 없다. 위로나 지지, 비난과 욕설, 그도 아니면 무관심. 모두 예상했던 반응들이다. 하지만 우리를 욕



하는 참여자들은 거의 만날 수 없었다. 어쩌면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진 요즘, 이들이 공개적으로 입을 열기엔 힘든 상황이라 그럴지도 모르겠다. 우리 사회가 공분을 사지 않는 성폭력에 대한 논의는 회피하고 있지 않나. 듣고 싶은 성폭력의 경험에만 공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말하기대회를 마친 지금 성폭력에 대한 복잡한 고민들만 더 늘어났다. 눈이 까만 밤하늘에서 펄펄 내려온다. 환하다기보다 아득하게 어둡다는 기분이다.

오랜만에 들어간 말하기참여자 모임 카페에 한 참여자가 붕어빵을 먹고 싶다는 글을 남겼다. 일주일이나 지난 글이지만 반갑게 댓글을 남겼다. 난 슈크림 붕어빵도 먹어보았다고. 지난여름처럼 빈번하고 잦은 만남은 아니지만, 그 시간이 엮은 관계에 기대어 느슨하게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일상을 전하며 지내고 있다. 함께 찍었던 사진과 글들을 새삼 다시 보니 입가에 씨익 웃음이 번진다. 남현, 도경, 봄, 차차, 지현, 상정, 마도, 선생님들, 상담소 활동가들. 모든 이들에게 고맙다는 말 뒤늦게 이렇게나마 전한다. 올여름의 추억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잊지 “딱히 갖고 있는 것도, 갖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열린터 요리 자원 활동가의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열린터에는 지난 11월부터 매주 한 번씩 직접 방문하셔서 요리를 만들어주시는 요리 자원 활동가 분들이 계십니다. 궁중요리를 사사받고 현재 요리사로 일하시는 현주님과 사찰 음식점에서 일하고 계신 미희님인데요, 쉬는 날 인데도 열린터에 오셔서 재능을 나눠주시는 너무 고마운 분들입니다.



현주님

“열린터에서 과외 자원 활동 하시던 분과 얘기 하다가 열린터를 알게 되었어요.

조금 힘들긴 한데,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니까 저에게도 정서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미희님

“현주 언니 소개로 오게 되었어요.

전에 같은 직장에서 일했거든요.

매일 요리하는 거 여기 와서도 하는 거니까 별로 힘들진 않아요.

열린터 친구들 직접 보니까

생각보다 밝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반찬 종류 자신 있습니다!”

그동안은 열린터 생활인들이 저녁 식사당번을 정해서 직접 요리를 해 먹었어요. 청소녀들이 대다수여서 요리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현주님과 미희님이 반찬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짹 짹 채워두시니, 식사 때마다 냉장고에서 꺼내 먹기만 하면 된답니다. 대신 열린터 생활인들은 직접 꼬막 손질도 하고 부추나 파도 씻어서 다듬으며 열심히 돕고 또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마침 이 날은 '분식집' 콘셉트이어서 쇠고기김밥, 참치김밥, 치즈김밥, 새우김밥 등과 캘리포니아롤, 야채가 푸짐하게 들어간 떡볶이, 계를 넣어 육수를 진하게 우려낸 어묵 탕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 돌죠?



현주님이 살짝 공개하신

크림 스파게티 레시피!

- ❶ 처음에 양파랑 베이컨을 다져요. 베이컨은 너무 다지지는 말고요.
- ❷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양파와 베이컨을 달달 볶아요. 양파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없어질 때까지 볶습니다.
- ❸ 볶으면 베이컨의 비린내가 올라와요. 그러면 후추를 넉넉히 뿌려요.
- ❹ 3 에 생크림이랑 우유를 붓고 (생크림을 우유보다 조금 더 많이 넣어요.) 약불에서 서서히 졸여요. 월계수잎 있으면 넣으시고요.(생크림이나 월계수 잎은 마트에서 팝니다.)
- ❺ 밀가루를 물에 1:1로 풀어서 4 에 넣어서 농도를 맞춰요. 마지막에 건바질을 뿌리면 더 좋죠.
- ❻ 그 다음에 파스타 면을 삶습니다. 찬물에 헹구지 않는 거 아시죠?
- ❼ 바로 마늘을 슬라이스해서 올리브유 넣고 딱딱해질 때까지 볶아요. 여기에 삶은 면을 넣어서 볶다가 크림소스를 넣고 졸여요.
- ❽ 그리고 취향별로 넣고 싶은 재료를 넣습니다. 저는 브로콜리를 좋아해서 브로콜리를 미리 데쳐 놓았다가 넣어요. 이 재료들은 미리 삶거나 구워놓고 살짝 크림 묻히는 수준으로 해서 넣으면 됩니다.
- ❾ 이제 예쁜 접시에 담으면 완성!

* 크림스파게티를 채식인용으로 만들려면 베이컨 대신 야채 육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야채 육수에 크림이랑 우유 넣어서 졸이고, 그 외에는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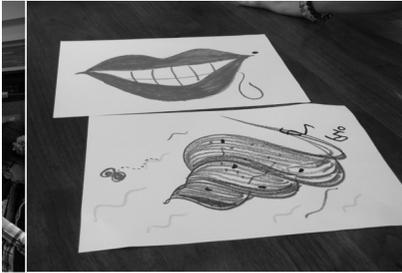


현주님이 크림스파게티 소스를 한 가득 만들어 놓으셔서 열림터 생활인들은 면만 삶고 소스를 데워서 아주 간편하게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었어요! 현주님, 미희님 복 받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오래 오래 저희와 함께 해 주세요~!

{ 2012년 7월~12월 활동보고 }

- 7/4 여성의 결정권과 건강권 측면에서 본 피임약 재분류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피임약 재분류, 왜 '여성'이 결정의 주체여야 하는가>
- 7/20 모두에게 안전하고 확실한 피임정책과 여성건강권 확대를 위한 촛불문화제
- 7/24~8/2 <성폭력피해생존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젠더감수성교육> 1차 교육
- 7/30 보건복지부 피임약 재분류 장관 간담회
- 8/7, 8/9 <성폭력피해생존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젠더감수성교육> 2차 교육
- 8/14 형법 개정안 내부 스터디
- 8/24~8/26 옥망찾기
- 8/30~9/2 <성폭력피해생존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젠더감수성교육> 3차 교육
- 9/6 상담활동가 MT
- 9/20 2012 한국성폭력상담소 섹슈얼리티 간담회 1 <수면위로 떠오른 브로맨스! 로맨스 소설부터 BL(야오이)까지>
- 9/24 여성아동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증인보호와 지원방안 토론회
- 9/25 2012 한국성폭력상담소 섹슈얼리티 간담회 2 <연애와 사랑,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인가?>
- 9/27 쟁점 토론회 <반성폭력 정책, 관점을 묻다>
- 10/05 쟁점 간담회 <반성폭력 운동의 미래전망, 국제연대에서 찾다>





10/14 회원의날 행사 '시골벽적 배꼽잡는 운동회'

10/17~11/7 성폭력전문상담원 심화교육 <널 뛰는 성폭력 관련법 따라잡기! 성폭력 사건 지원자를 위한 심화교육>

11/20 몸뚱이 말하기대회 <2012 세상이 여성들에게 말하는 좋은몸, 나쁜몸, 이상한몸>

11/28 성폭력 검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검찰 개혁 단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12/7 2012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하반기 평가회의

12/14

2012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한해보내기

12/17 젠더감수성교육 3년 평가 토론회 <우리에게 젠더감수성이 필요한 이유>

12/27 2013년 한국성폭력상담소 계획회의

<9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다시보기)>

6/30~7/14 몸 씨라피 워크숍

7/24~9/25 영상 워크숍

10/24 말하기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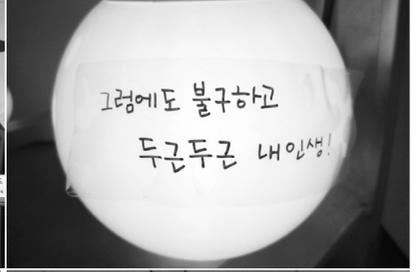
10/24~10/29 전시

<작은말하기>

7/25, 8/29, 9/26, 10/31, 11/28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의



온라인 후원으로 변화를 모색하기

두나 | 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온라인 후원 또는 소셜 펀딩, 들어보셨나요?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는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 중 하나는 온라인을 통한 후원입니다. 온라인 후원 플랫폼에서의 기부 활동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나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한 두 번씩은 이러한 활동에 참여해 보셨거나, 관련 사이트를 클릭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소셜펀딩(social funding) 이라고도 부르는 시민들의 후원 활동을 위해 여러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모금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은 시민들에게 익숙한 해피빈(happybean.naver.com)은 네이버 카페 또는 블로그 등을 사용하며 모은 '콩'이라는 일종의 사이버 머니를 기부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상담소와 같은 시민사회단체에서 해피빈사이트에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모금함을 개설하면, 그 단체의 활동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콩을 기부하는 방법으로 모금이 이루어집니다. 또 다른 온라인 후원 플랫폼인 '소셜펀치 (socialfunch.org)' 나 아름다운재단에서 운영하는 '개미스폰서 (socialants.org)' 싸이월드에서 운영하는 사이좋은세상(cytogether.cyworld.com)도 비슷한 형태로 시민 누구나 온라인 결제를 통해 후원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클릭으로그리는행복한세상

해피빈



띠끌 모아 태산!

온라인 후원은 상담소와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에 필요한 자원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정된 인원과 자원으로 활동하는 대다수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의 지원금이나 기업의 후원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자원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게다가 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활동과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의 후원보다 각 단체들의 지향과 활동에 동의하는 시민 개개인의 후원이 매우 중요합니

다. 따라서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모금은 모금 액수가 적더라도 그 의미는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도 온라인 모금을 통해 많은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012년 올 한해에는 <성폭력피해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책 나눔> 모금함을 통해 모인 후원금으로 50여명의 성폭력피해생존자에게 치유와 사 건해결에 도움이 되는 책을 지원할 수 있었고, <2012 성폭력피해자의 더 나은 미래를 응원하는 생존 키트> 모금함 개설로 7명의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이 성폭력 경험을 넘어 또 다른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아동성폭력예방을 위한 단행본 제작과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고, <비가 새는 상담소 건물 수리비>, <열린터 생활인들의 피복비> 등 상담소 활동 이곳 저곳에 필요한 많은 비용을 시민들의 힘으로 충당 할 수 있었습니다. 수 천, 수 만 명의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이 기금들은 성폭력 없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상담소의 활동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운동의 장에서 만드는 변화

온라인 모금의 또 다른 매력은 온라인이라는 무한한 공간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열두 명의 활동가들이 활동하는 상담소는 시간과 공간적 제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 직접 반성폭력 운동의 이슈를 전하고 나누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 공간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유용한 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은 온라인 모금 공간에 활동 내용을 알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운동의 방향과 목표, 구체적인 활동결과 등을 전합니다. 반성폭력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직접 상담소에 방문하거나 활동가들을 만나지 않더라도 온라인 후원이라는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든 반성폭력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원을 통한 시민들의 참여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사회 문제들이 나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줍니다.

그동안 상담소도 온라인 모금 공간을 통해 반성폭력 활동에 공감하고 참여하는 수 만 명의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지지, 참여로 상담소는 지지 않고 반성폭력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공간에서 더 많은 분들을 만나,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두근 뛩니다! 상담소는 온라인 모금을 통해 성폭력 없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활동에 함께 해 주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바로 지금! 클릭으로 세상을 바꿔요! 클릭 클릭!

- 한국성폭력상담소 해피빈 해피로그 happylog.naver.com/ksvrc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린터 해피빈 해피로그 happylog.naver.com/yeolim

※두나 내 방을 좋아합니다. 모든 여자들에게 맘껏 뒹굴뒹굴 할 수 있는 방이 생기길 바라는 집귀신 페미니스트.

[훈훈한, 기부]



올 하반기에도 상담소와 열림터에는 훈훈한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과 선물들이 상담소와 열림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상담소}

진진님이 선물해주신 달콤한 꿀차
교보문고 유수연 님이 후원해주신 책
용기님이 보내주신 고구마 한 박스
어린님이 보내주신 향긋한 꿀
커피플러스에서 보내주신 시원한 배
이경한 지문위원님이 보내주신 예쁜 화과자
최보원 이사장님이 보내주신 풍성한 추석 선물세트
조안섭 변호사님이 보내주신 맛있는 와인
백주년기념교회에서 보내주신 따끈따끈한 떡
상담활동가 산티님과 민정원님이 후원해 주신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뒷풀이 비
가톨릭대학교<현대사회와 성화 문화>수강생들이 수제 비누를 판매해 보내주신 수익금
신상호님이 보내주신 달콤한 간식
조은희 상담활동가님이 만들어주신 맛있는 반찬
미소 상담활동가님이 후원해주신 쌀
허정익님이 보내주신 향긋한 황금향
조규선 상담활동가님이 보내주신 커피
젠더 네트워크의 후원금

쌀과 잡곡 후원으로 영양보충해주신 **공명 활동가 부모님**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의 인세를 후원해주신 **은수연님**
사진 촬영으로 회원의 날을 멋지게 기록해주신 **검준님**
상담소의 빈 구석을 채워주시는 **자원활동가 분들**
한해보내기를 빛내주신 **자원활동가 이운상, 라다, 볼, 차차님**

{열림터}

박선정님이 보내주신 달콤한 과일
김도희님이 후원해주신 새콤달콤 유자차와 옷, 송편
이나연님이 보내주신 향기로운 플라워에센스와 신발
서울화력발전소에서 후원해주신 쌀
이선영님이 후원해주신 옷과 책, 후원금
(주)대상,(재)한국보육진흥원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에서 후원해주신 식재료들
은수연님이 선물해주신 맛있는 귤감
백미순님이 후원해주신 갈비
최광욱님이 후원해주신 백화점 상품권
영국부인회에서 선물해주신 화장품
김미자님이 후원해주신 영양 등복 달걀과 홍시
박인필님의 후원금
열림터 회원가입카드 디자인으로 열림터를 빛내주신 **공작님**
열림터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한 의사 도희님**
요가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길러주시는 **유미샘**
생활인들의 창의력을 싹싹 길러주시는 풍선 아트 **최은숙 선생님**과 비즈 **공예 선생님**
열림터의 맛있는 밥상을 책임져 주시는 **현주님과 미희님**
생활인들의 공부를 도와주시는 **재경님, 안성욱님, 서정희님**
자원활동가 소은, 하나님
친족성폭력연구 사업을 후원해주신 **친족성폭력피해 생존자분**

기
부
하
는
기
분
이
하
는
기
분
이
하
는
기
분
이

201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새로 오신 후원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강미연, 기푸름, 김가형, 김경호, 김대근, 김미경, 김미래, 김미자, 김서화, 김선영, 김성훈, 김영미, 김영숙, 김유숙, 김은중, 김태연, 김효진, 나경미, 남민영, 남영미, 남인순, 남혜정, 박수지, 박영수, 박정옥, 백목련, 서복련, 서정희, 서화숙, 소희, 손신혜, 슌, 신은영, 신종필, 우성희, 이보윤, 이성진, 이승이, 이영근, 이재원, 이정효, 장혁연, 전미르, 정은희, 정인호, 채송희, 채송희, 최신혜, 최정은, 최정희, 하연수, 한경아, 함경진, 허정연, 홍숙기, 황보선경

2012년 6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가람, 강공내, 강근정, 강기순, 강남식, 강동화, 강득록, 강명득, 강명숙, 강미경, 강미연, 강보길, 강선미, 강영, 강영미, 강영순, 강영화, 강은주, 강이현주, 강인화, 강정희, 강지아, 강현구, 강혜숙, 강희진, 계경문, 고금이, 고미라, 고보경, 고예지, 고은별, 고재경, 고정남, 고정삼, 고효주, 고희정, 광경화, 광옥미, 광윤이, 광현지, 구민희, 구분준, 권구주, 권기숙, 권김현영, 권나현, 권명진, 권민혁, 권소영, 권오란, 권인선, 권인숙, 권인자, 권정, 권주희, 금철영, 기푸름, 기화숙, 김가형, 김가희, 김강자, 김경선, 김경아, 김경애, 김경태, 김경현, 김경호, 김경훈, 김경희, 김광만, 김광수, 김광진, 김금진, 김기혜, 김나연, 김나형, 김다미, 김대근, 김대숙, 김도홍, 김도홍, 김동래, 김동명, 김동현, 김동희, 김두나, 김돌순, 김매정, 김명숙, 김명희, 김문빈, 김미경, 김미경, 김미라, 김미랑, 김미래, 김미선, 김미영, 김미영, 김미옥, 김미자, 김미주, 김미주, 김미희, 김민규, 김민성, 김민정, 김민정, 김민지, 김민환, 김범은, 김병필, 김보경, 김보영, 김보화, 김상미, 김상정, 김상호, 김셋별, 김서화, 김석계, 김선경, 김선미, 김선민, 김선애, 김선애, 김선영, 김선화, 김선희, 김성동, 김성문, 김성자, 김성훈, 김세훈, 김세희, 김소연, 김소연, 김수, 김수민, 김수민, 김수연, 김수정, 김수진, 김숙영, 김순자, 김아리, 김애라, 김양지, 김엘림, 김연경, 김연경, 김연우(김태진), 김연정, 김연희, 김영서, 김영선, 김영세, 김영수, 김영숙, 김영신, 김영환, 김예담, 김옥주, 김요한, 김용란, 김용백, 김우혁, 김원식, 김원정, 김원희, 김유숙, 김유진, 김유진, 김유진, 김윤경, 김윤희, 김은경, 김은숙, 김은아, 김은정, 김은중, 김은하, 김은혜, 김은진, 김의창, 김이슬, 김인숙, 김인애, 김인혜, 김일륜, 김자경, 김재원, 김재원, 김재윤, 김재훈, 김정민, 김정수, 김정완, 김중수(권상범), 김중희, 김주영, 김주희, 김준호, 김지미,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지혜, 김지훈(김해리), 김진숙, 김차연, 김탁환, 김태섭, 김택진, 김하나, 김하나, 김하연(나성일), 김하정, 김한상, 김한선혜, 김해경, 김현, 김현경, 김현경, 김현란, 김현성, 김현수, 김현숙,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진, 김형수, 김혜경, 김혜경, 김혜련, 김혜숙, 김혜영, 김혜영, 김혜정, 김혜정, 김혜정, 김혜진, 김혜현, 김화숙, 김화영, 김효선, 김효정, 김효진, 김효진, 김효진, 김희정, 김희정, 나경미, 나길희, 나미나, 나선영, 나윤희, 나인선, 남길석, 남덕우, 남민영, 남영미, 남인순, 남정현, 남현미, 남현우, 노경란, 노길옥, 노미선, 노민희, 노복미, 노선이, 노유성, 노재봉, 노정주, 노주희, 노지성, 도병욱, 도상금, 라길자, 류란, 류종현, 류진봉, 마경민, 목소희, 문경희, 문기선, 문길환, 문김채연, 문미라, 문미정, 문석진, 문성훈, 문수연, 문수영, 문영민, 문지영, 문지은, 문효진, 문희영, 민정원, 박경옥, 박경훈, 박다위, 박덕업, 박명숙, 박미라, 박미란, 박미선, 박미숙, 박미숙, 박미영, 박미영, 박미향, 박미현, 박민주, 박병련, 박보영, 박상규, 박상희, 박상희, 박상희, 박선숙, 박선희, 박성주, 박성훈, 박세정, 박소라, 박소림, 박소연, 박수연, 박수지, 박수진, 박수미, 박순복, 박승일, 박아름, 박아름, 박영, 박영례, 박영주, 박용철, 박윤미, 박윤숙, 박윤주, 박은미, 박은자, 박은진, 박은혜(이준기), 박정란, 박정순, 박정연, 박정옥, 박정은, 박정은, 박정은, 박종선, 박주연, 박준연, 박준숙, 박준숙, 박지나, 박지에, 박지영, 박진숙, 박진표, 박창경, 박하윤경, 박현달, 박현애, 박현순, 박현이, 박현주, 박현준, 박현희, 박혜진, 박희연, 박희주, 방기연, 방은제, 배경, 배동란, 배은경, 배자하, 배재훈, 배정원, 배정철, 배지연, 백명숙, 백미순, 백미순, 백선희, 백선희, 백성길, 백세희, 백윤정, 백인애, 백지선, 백지훈, 백현, 변계희, 변순임, 상목스님, 서권일, 서명진, 서명희, 서미현, 서민자, 서복원, 서복련, 서석호, 서순진, 서영주, 서예린, 서용완, 서윤숙, 서윤숙, 서정애, 서정표, 서정훈, 서정희, 서태자, 서해인, 서화숙, 서희석, 서희순, 선희갑, 설연자, 성길성, 성나리, 성지은, 소병만, 소희, 손경이, 손기주, 손명구, 손명화, 손미연, 손보경, 손연성, 손우성, 손정혜, 손준성, 손희정, 송미현, 송민성, 송수영, 송승훈, 송애량, 송요신, 송은숙, 송은주, 송치선, 송호균, 신겸우, 신경혜, 신동현, 신동훈, 신명숙, 신문창, 신상숙, 신상호, 신선애, 신성용, 신영미, 신원세, 신윤진, 신은영, 신은재, 신은주, 신자향, 신정혜, 신종필, 신종훈, 신현, 신현정, 신현주, 심소영, 심수희, 심진실, 심창교, 심현실, 심혜련, 안민, 안보라, 안윤정, 안재훈, 안정은, 안주리, 안창혜, 안철민, 안초롱, 안하영, 안하영, 안형윤, 안효신, 안홍자, 양동훈, 양미초, 양미초, 양민희, 양성옥, 양수안나, 양예경, 양영희, 양영희, 양윤희, 양은주, 양지혜, 양창수, 양현경, 양현규, 양효준, 엄인숙, 여명숙, 오경희, 오광수, 오미근, 오세희, 오송환, 오승민, 오승이, 오자경, 오자영, 오정진, 오정희, 오지원, 오진아, 오현주, 우성희, 우안녕, 우완, 우준희, 원경주, 원민경, 원민혜, 원성혜, 원순경, 원창연, 원형섭, 원혜숙, 유경란, 유경희, 유계옥, 유백숙, 유상열, 유선옥, 유선원, 유세정, 유소영, 유숙조, 유여원, 유예리, 유은주, 유재경, 유정희, 유혜숙,

